

자비하신 하나님, 맑고 높은 가을 하늘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하늘도 맑고 높게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들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의 떡구름 걷어 가시고 무지와 어리석음의 녹녹한 기운도 말끔히 없애주십시오. 창공을 가벼이 나는 잠자리들처럼 우리의 영혼도 가볍고 투명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점점 자유가 사라지고 지배와 통제와 억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의 음성을 듣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해방과 자유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자유를 소수의 무리가 독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현금:

장영숙 김춘려 한완식 임정자 박규석 박경선 이봉옥 임 영 정경례
최종원 조관행 홍선희 장원호 박성희 정은영 곽상준 손성현

월정현금:

권미정 박석희 조항미 박준희 이기분 서정순 윤주원 최윤선 이정은
이수정 배재경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박준규 서지영

감사현금:

김서현 김정민 정영선 이유일 김미희 백묘현 김재흠 김춘려 임주빈
최현옥 장영숙 이정은 장성호 강지은 오래된미래 장지은 김정민
무명4

녹색꿈헌금: (누계 : 2,020,000원)

	장혜숙	장혜숙		
	노순옥	정경례		
	임정자	임정자		
	문영혜	박경선		
	안정숙	박애순		
	박홍재	곽권희		
	박효선	허정윤		
	최숙화	권미정	심	
	이순정	김금순		
	이형숙	권미숙		
	안홍숙	오현정		
	백혜숙	정옥영		
	송양진	유경순		
	이영란	박미영		
	박혜경	최영혜		
				연합수회

핑계 핑계 도라지 캐러 간다

한 아이가 학교에 지각을 했다. 선생님이 꾸중을 하자 아이가 대답을 한다. 학교 오는 길에 강도를 만났다고. 깜짝 놀란 선생님이 무얼 빼앗겼느냐고 묻자 아이가 대답한다. 숙제를 빼앗겼다고.

한 여사원이 늦게 출근을 했다. 상사가 이유를 묻자 출근길에 누군가가 뒤쫓아오더라는 것이다. 그러면 더 빨리 왔어야지 왜 늦었느냐 하자 대답을 한다. 그가 천천히 뒤쫓아오더라고.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냐 묻는 모세에게 아론이 대답을 한다. 백성들이 가져온 금을 불 속에 집어던졌더니 송아지가 되어 걸어 나왔다고.

당신이라면 어느 핑계에 금메달을 주겠는지.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던 옛 시절, 젊은 처녀의 경우엔 더욱 그러했다. 세상이 궁금하여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듣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마음대로 바깥출입을 할 수 없으니 얼마나 불편했을까.

적당한 이유를 대야 허락되었던 외출, 그 중 둘러대기 좋은 것이 도라지였다. 도라지 캐러간다는 핑계를 대고 나와 바깥바람을 쐬고, 또래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기도 하고 때론 다른 이의 눈을 피해 님도 만났을 것이다.

핑계는 끝이 없어서 자신의 불충을 가릴 핑계는 충성할 이유보다도 언제라도 많고 자신도 수긍시킬 만큼 그럴 듯한 법이다.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에 들었다며 자만하지 마십시오. 좋은 무리 안에 속해있다는 생각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삶을 변화시키십시오.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부렸던 혈기와 욕심들을 버리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며 알게된 기쁨과 사랑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 단절과 갈등의 시대에 소통과 화해의 길을 열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말씀 / 이성운 전도사	9월 기도의 밤
기도 / 최영혜 권사	인도 / 김재흥 목사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손성현 전도사 김기석 목사	박인혁 선생 장영숙 전도사	인도자 윤성중 집사

8월	영접위원	김인걸 김용진 권혁순 박효선 문영혜 박혜경
	헌금위원	김인걸 이순정(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오해를 이해로 바꾸던 날

주님,
저녁 늦게 방으로 돌아오니 편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편지 받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방에 들어서기도 전에
편지 봉투를 뜯으며
반가움에 피곤한 것도 잊어버리고 얼른 펴보았더니
낯에 제게 섭섭함을 느꼈던 이의 서운함이
아직도 진하게 묻어 있는 글이었습니다.
따지는 듯한 말마디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제 마음에 한자락 어둠을 깔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저도 그 못지 않게 해주리라 마음먹고 잠자리에 들었으니
다음날은 시작부터 엉망이었습니다.
분노로 그를 기다리다 잠깐 당신을 생각했지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빠른 결론이지만
당신이라면
그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실 거라는 생각이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한시도 저를 편하게 두지 않으시는 주님,
당신 품에 빠져 속 시원하게 되갚아주려던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작 그가 왔을 때는
먼저 그의 심정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처지를 이해하고, 저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면서
당신께 여쭙봤자
손해보는 건 저뿐이라고 불평을 했지만
마음 안에 솟아오르는 평화로움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시기에

주님,
당신 말씀을 따르는 것만이 참된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좋은 말 한마디 때문에

공연히 웃음이 나오고 만나는 이에게마다 장난을 걸고 싶은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다를 것 없는 날인데도 이토록 기분이 좋은 건
동료들에게 들었던 격려의 말 때문입니다.
복잡한 일을 처리하느라 주위를 돌아볼 틈도 없이
한 달을 달려왔는데 남은 건 육신의 피곤함뿐이었습니다.
제가 해낸 일이 잘한 건지 남들에게도 필요한 일인지
자신이 없고 오직 일에만 매달려 끌려온 심정이었습니다.
잘했는데. 아주 근사해.
밤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야.
한마디 한마디 감사로움을 표하는 그들의 목소리에
한 달의 고생이 말끔히 씻겨갔습니다.

가끔 저는 모든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게 주어지는 것들을 무심코 받습니다.
고마운 말을 고마워하고
작은 친절들에 감사하는 것을 잊고 삽니다.
세상이 각박하다고 불평만 하면서
제가 세상을 메마르게 한다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 있는데
잘못되는 것은 남들의 책임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당신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꾸준히 선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김현옥, <<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중에서